

UPASIKA PRAISED CONTENTS

- 02 발행인 칼럼 | 이기향
개발원이 달라지고 있어요
- 04 불교와 여성 | 옥복연
붓다의 탄생을 증명한 대지의 여신
- 06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조정숙
천안 원오사 뒷 뜨영 탄 주지스님을 찾아서
- 09 108인 기획 인터뷰 | 전영숙
인생 제3막, 문을 여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 12 현장스케치 | 조민기
꼬마 부처님들의 모험 가득 템플스테이
- 16 특별활동보고 | 남동현
늦여름! 발전계획 발표회 성황리에 갖다
- 20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 최혜경
카레소스와 감자조림
- 22 사무국 소식
- 25 산하기관 센터 소식
- 29 회원 동정
- 30 재정동참 현황

우바이예찬

2023년 87호

[발행인] 이기향 [발행일] 2023년 10월 15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 스튜디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047)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 30길 20 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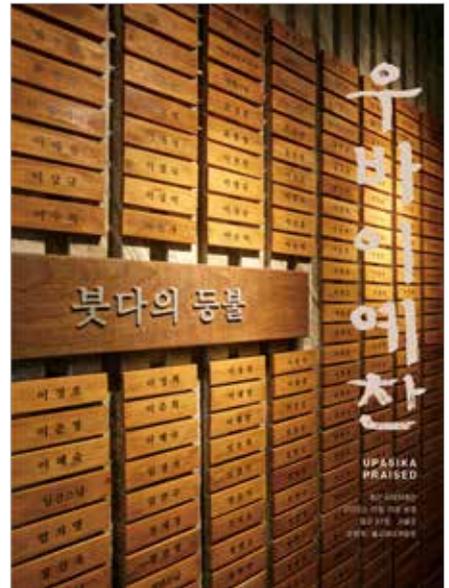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 사진]

불교여성개발원 2층 지혜실 진입 벽에 완성한 모연판

[사진작가/최배문]

전) 불광미디어 전임사진가

전) RAY 스튜디오 대표

경민대 미디어사진과 졸업

낯선 대상을 '낯설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 머리와 감각이 아닌
발로 뛰고 가슴으로 품어내는 사진을 추구하고 있다.



개발원이 달라지고 있어요

곳곳에 심는 작은 변화의 바람

원장 소임을 맡기 두어 달 전부터 제게 주어졌던 '광장건립의 완성'은 최대한 아름다운 불교여성개발원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이란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내적인 힘이 함께 숨쉬는 불성 충만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여성개발원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공간을 가꾸어가는 일이며 제자신의 본체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구석구석에 가장 적합한 쓰임새를 부여하는 일은 매우 주요한 책무가 됩니다. 지난 7월 초에는 1층 계단을 오를 때 자연스럽게 눈길을 사로잡는 108 여성광장 입구와 2층 지혜실 진입 벽에 수 개월간 정성을 쏟아 완성한 모연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함축한 상징 문구에 스토리를 담아 천 스무(1020)분의 소중한 이름을 새긴 명패를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면서 '연꽃의 향기'는 '보살의 손길'이 되어 '붓다의 등불'을 밝히려...는 의미가 전달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호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이 세 핵심 개념이 아우르는 1020개의 이름은 불교사에 남을 거룩한 설치작품(모연판)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순간에도 '보살의 손길'이 밝힌 '붓다의 등불'은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제 '연꽃의 향기'를 발하는 더 많은 대승 보살이 나투어 주시길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변화를 위한 적극적 몸짓, 발전계획 발표회

2023년 상반기에 이어 중반기에는 두 차례의 발원문 쓰기, 행복가족센터의 나들이, 여름수련회와 발전계획 발표회를 위시하여 2회차 영108 키즈 템플스테이, 리사이클링 솜씨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줄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개발원이 주관하는 수행과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수고하시는 센터장님과 담당자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중반기 행사 중 발전계획 발표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발원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수행과제를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발전계획의 수립은 회원들에게 자긍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감사하게도 이 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일고 있었음에 부처님의 가피를 느낍니다. 발표회에서는 조직과 재정, 청소년교육, 국제교류와 교육 그리고 문화역량강화사업의 다섯 분야에 심도있는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주제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개발원 사업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이었던 전체 자유 토론이 각지에서 모인 30여 분의 동참자들에게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

운여성의 세부 현황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변화를 향한 자발적 움직임이 필요할 때

불교여성개발원은 2000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태어나 수송동 조계사 건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11살이 되던 해인 2011년에는 개발원의 홀로서기를 위해 고정관념을 깨는 반전의 미학을 담아 기금모연문화제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개최하였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공적 결과는 비록 전셋집이긴 해도 교육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교르네상스'란 색다른 개념은 시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불교의 진리가 문득 재평가되어 중국에는 번영할 것이라는 예지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14년에도 교육관의 재계약과 불교여성광장 건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불교르네상스의 꿈 II'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회향한 바 있습니다. 개발원은 전임 원장님 열 분의 강력한 리더십과 임원, 회원님들의 몰입양면, 숭선수범하는 노고를 디딤돌 삼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종단으로부터 홀로서는 2022년에는, 또 한 번의 분심과 원력으로 23살 청년이 된 불교여성개발원이 마침내 청운동에 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원은 지난 23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온 끝에 여성광장 건립의 꿈을 거의 이루어냈습니다. 스스로 장만한 청운동 건물에 '불교여성개발원' 현판을 내걸기까지 108 여성불자들의 땀과 눈물이 그 토대가 되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정신적, 신앙적 활력을 끌어모아 또 한 번의 '불교르네상스'를 일으켜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개발원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한산사 발전계획 세미나가 세 번째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지피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개발원 구성원께서는 불교르네상스 III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디 공감의 에너지를 전파해 주십시오. 아울러 불교르네상스 III을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립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로 한마음 이루길

이제 곧 제11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미래를 지고 갈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108인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행력과 지혜가 충만한 선배 108인들께서는 새로 선정된 도반들과 힘을 모아 개발원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견인차가 되어주시기를 발원합니다. 아울러 후배님들께서도 자립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로 한마음 이루어 주시길 두손 모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붓다의 탄생을 증명한 대지의 여신

“보살의 공덕을 내가 증명하리라.

인간 세계는 물론 하늘 세계에서도 당신만큼 공덕을 쌓은 분은 없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을 굴복시키기 위해 나타난 마라(Māra)는, 보살이 과거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증언할 길이 없다며 그의 깨달음을 부정했다. 그러자 보살은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땅을 눌렀고, 이에 대지가 크게 진동을 하면서 대지의 여신이 땅을 뚫고 솟아올라 이처럼 보살의 공덕을 증언했다. 마라는 놀라서 도망갔고, 마침내 인간과 신들의 스승 붓다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붓다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는 바로 대지의 여신이였다.

그럼 왜 붓다는 대지의 여신을 증언자로 불렀을까? 붓다께서는 “만물이 의지하는 대지, 움직이는 것이든 움직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에 공평한 대지”로 대지를 설명하시며, 이 대지가 붓다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라고 했다. 대지는 온 생명을 품고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의지처이고, 모든 것에 차별두지 않고 공평하며, 세세생생 보살의 공덕을 보아왔기 때문에 진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지는 여신으로 등장하며, 경전에서는 스타바라(Sthāvarā 확고부동한 자), 혹은 바순다라(Vasundhara, 보물을 지닌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해오는 경전 속에는 다양한 여신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불교가 여신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에서 탄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인도는 원시 농경 사회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땅은 생활의 터전인 동시에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으로 여겨졌다.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땅은 여성의 임신 출산과 연결되면서, 땅은 곧 어머니, 즉 지모신(地母神)으로 여겼다. 대지의 풍요로움과 여성의 생식력이 결부되어 지모신은 고대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숭배되었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정복보다는 공생을, 권위보다는 조화를 중시하는 모권중심의 공동체였다.

대지의 여신은 상좌불교국가인 태국에서는 프라마에 토라니, 미얀마에서는 와톤다라라는 젊은 여성으로 등장하는데, 보살이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 마라는 붓다의 탄생을 막기 위해 엄청난 군대와 사나운 들짐승들을 동원한다. 그러자 대지의 여신은 한 손으로는 긴 머리카락의 아래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의 끝을 잡고 휘저으며, 머리카락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어 마라의 군대를 물로 쓸어버린다. 대지의 여신이 이처럼 군대를 쳐부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훗날 힌두교에서 전쟁의 여신 ‘두르가(Durga)’와 ‘칼리(Kali)’처럼 용감한 여신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라와 싸워서 물리치는 용감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서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살의 공덕을 증명하기 위해 나타나는 대지의 여신
출처: 법보신문 2016.12.27

또 다른 한편으로 대지의 여신은 모든 중생을 포용하거나 보살의 깨달음을 지원하는 자비로운 모성애적 특성을 지닌 수호신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예를 들면 『방광대장엄경』이나 『불본행집경』에서는 대지의 여신이 엄청난 핑음을 내며 등장하는데, 이에 마라가 놀라 기절하자 대지의 여신은 그를 깨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아무리 붓다를 위협에 빠뜨리려는 마라지만, 그 목숨까지 살려주려는 행위는 자비로운 어머니 지모 신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붓다와 마라(Māra)의 대결 이야기는 엄청난 수행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생애 동안 무량한 공덕을 지어야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붓다의 과거 공덕을 증명할 존재로서 하늘을 관장하는 범천(梵天)이 아니라 대지의 여신을 내세웠다는 것은, 고대 지모신 전통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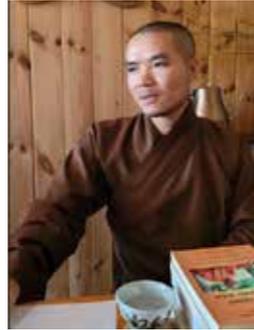
고대 인도 신화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여신들은 불교에 습합되는 과정에서 그 능력이 확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한 사라지기도 한다. 대지의 여신은 힌두교에서는 악과 재난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워서 초월적 신인 비슈누에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로 묘사된다. 하지만 불교에서 강력한 권능을 가진 여신이 되어, 악마를 물리치고 붓다를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대지의 여신(自性不動神)은 『화엄경』에서 선재동자에게 깨달음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금광명최승왕경』의 ‘견뢰지신품(堅牢地神品)’에서는 붓다의 선행을 증명하고, 호법신장으로서 나라를 수호하며, 개인의 소원 성취를 약속하기도 한다.

또한 대지의 여신은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는 그날까지 자신의 성불을 마지막으로 미루는 지장보살과 연결된다. 원래 ‘지장(地藏)’은 산스크리트어로 ‘크시티 가르바’, 즉 Ksiti ‘대지(大地)’와 garbha ‘자궁(子宮), 태(胎)’가 합쳐진 용어로, 여성의 자궁이나 태처럼 생명을 품어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인도신화에 의하면, ‘지장’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을 간 어머니를 구제해달라고 붓다께 요청을 드린 브라만 계급 소녀였다. 그녀는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이 제도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고 서원을 세웠는데, 남성중심 가부장적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고착되면서, 소녀였던 지장보살이 남성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성 자신의 몸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순환을 경험하기에, 오늘날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나 전쟁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마치 붓다를 수호하고, 땅과 자연과 생명의 원천인 대지의 여신처럼. 

천안 원오사 텃 뜨엥 탄 주지스님을 찾아서

충남 천안의 원오사는 한국의 베트남 불자들이 세운 절이다. 천안역에서 내려 독립기념관을 지나 40여 분 차로 이동하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5길 65-36에 원오사가 있다. 노인자 다문화 행복가족센터 센터장, 원오사의 신도회장 격인 이옥빈씨가 동행했고, 편집위원장의 배려로 천안에서 '나눔북카페'를 운영 중인 형양자 회계감사가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해준 덕분에 인터뷰를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원오사에 도착하니 텃 뜨엥 탄 주지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국에 사신 지 얼마나 되었고, 원오사의 창건 배경이 궁금합니다.

2013년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의 베트남 불자들에게 온라인 법회를 열다가 한국에 잠시 와서 법회를 볼 때 공간이 없어 수원에 있는 어느 절에서 첫 번째 오프라인 법회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울산에 있는 상원사에서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모여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계속 온라인으로 지도하다가, 2015년에 구미에 계시는 진오 스님과 종교 비자 초청으로 한국에 왔으니 8년째 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불교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와서 전국의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각 지역의 불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충주를 계기로 서울, 전라도에 이어 최근 제주도까지 지역 법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헤아려보니 춘천에서 제주도까지 12곳에 불자 모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천안 원오사와 양산 해원사 외에는 모두 다 한국의 절을 빌려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사는 한국으로 이주해온 베트남 사람들의 고향의 집 같은 한국 최초의 절입니다. 한국 사회가 글로벌 추세에 따라 날이 갈수록 다문화 사회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화합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베트남 불교모임에서 불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부한 물질과 맑은 정신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오사를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가한 베트남의 본절 이름이 원오사입니다. 그래서 사찰 이름을 원오사라고 했습니다. 원오는 '둥글 원圓, 깨달을 오悟'입니다.

지방이지만 땅 구입하고 절 짓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2018년 한국에 와 법회를 보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 전국을 돌며 법회를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15층에 있는 포교당을 2년 동안 운영하며 건축비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한국의 사찰매매 사이트를



를 챙겨보며 괜찮은 곳이 보이면 신도들과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개원하기 전까지 전국의 32곳을 둘러봤습니다. 신도들과 같이 와서 여기를 둘러보고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2년 동안 함께 계속 모았습니다. 한국의 시골은 봄, 가을 수확기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한 곳에 가서 주중에는 공장 등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모여 숙식하며 양파, 무, 배추 수확을 함께하며 받은 노임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 2년 뒤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천안의 원오사는 부처님의 원력인 것 같습니다.



출가는 언제 했는지요?

저는 베트남의 아짱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 아짱은 호치민에서 비행기로 1시간, 버스로 5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13살에 출가, 8년 동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선문대학교에서 다문화교육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 꿈이 있다.

한국의 절을 인수해서 베트남 1호 절인 원오사를 창건한 뒤 법회를 연 소감이 어떤지요?

그동안 베트남 불자들이 큰 행사도 하지 못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의 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체 행사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절을 만들어 원오사에서 행사를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와서 법회를 보면 베트남인 듯하고, 베트남 야채 심고 고향처럼 의지해서 살고 있고, 현재 한부모 가족도 3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 노동자 2명, 행자 2명, 스님은 2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몸이 좋지 않거나 산재를 당하면 며칠 동안 쉬고 갑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오면 직접 음식을 해 먹고, 행사가 있을 때도 음식을 손수 준비합니다. 주말에 다른 지역 법회 때문에 절을 많이 비울 때도 신도들이 와서 법회를 보고 공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와 한국에서의 다른 점은?

베트남에는 모든 행사, 정치, 마을의 의사 결정이 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절 한 곳은 꼭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베트남 이주민들이 추석이나 설날 며칠 뒤엔 술 마시고, 도박하고, 노래방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고 등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절이 있으니까 주말이나 명절 등 쉬는 날에는 무조건 법회를 열면 일하고 혼자 있고, 가족이 없고 외로웠던 이주민들에게 베트남 절이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는 공간이 되어 큰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쉼터이고, 의지처입니다. "등록된 신도가 몇 명이다."고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오사가 첫 절이기도 하고 북부, 남부 중심의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네



트워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추석에는 1주일 동안 단기출가를 실시합니다. 정기법회는 4주째 일요일인데, 토요일 밤부터 모이고 절에서 자고 포살 법회도 24시간 진행합니다. 베트남과는 무척 다릅니다. 우리는 절에서 법회, 독송, 명상, 포살 등을 진행하기에 1박 2일 긴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의 절에서 법회를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법회를 할 때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주민 여성 남편이 찾아오는 정도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추석에 어린이날이라 1주일 동안 아이들을 위한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호 베트남 절을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남 양산에 해원사 개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원사는 비구니 절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원사 주지 스님도 여기 살다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인천 약사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10월 8일 개원법회를 엽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사찰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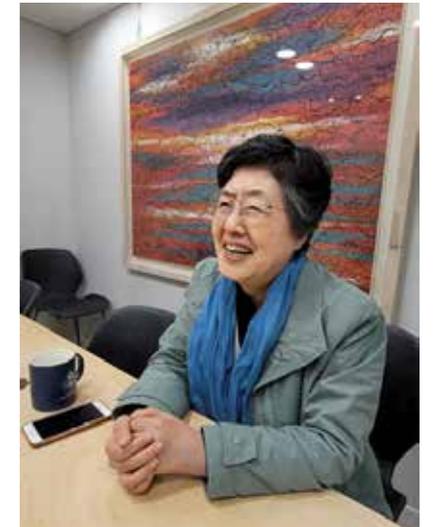
천안 원오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베트남 원오사 큰스님을 초청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단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조계종이나 한국의 큰 종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문화 학교를 세워도 국가가 인정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쉽터를 운영하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건 한국 행정에 맞게 서류를 만들어 낼 수가 없고 예산, 결산 등 행정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천안시 다문화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끝으로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주여성의 가정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재가여성불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주민여성들과도 협조해서 상담심리, 다문화가족 문제, 어린이들 교육 등 다방면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인생 제3막, 문을 여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김진 불교여성연구소 소장님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34년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일하셨다. 이런 선생님이 퇴임 다음 날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불교학과 학부생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를 맞이하였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젊은 청춘과 이웃 할머니들에게 회향하는 일상을 보내신다. 영원한 청년 김진 선생님! 선생님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수가 된 후 스스로 워크홀릭이라 인정할 만큼 직장생활에 몸과 마음을 탈탈 털어 바치셨다. 그런 분이 정년퇴임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을 때 공허감과 상실감이 크게 엄습해왔을 것이다. 아래 글은 선생님이 퇴직과 더불어 불안해진 내면을 당당히 마주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에 스스로를 데려다 놓음으로써 어떻게 새 길을 찾고, 또 이 새 길 위에서 새롭게 만난 인연들과 함께 어떤 향기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소개한 것이다. 선생님의 이번 인터뷰가 은퇴 후 인생 3막을 준비하는 회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아, 그리고 은퇴 전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2022년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진행한 자서전 사업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 프로그램에서 직접 쓰신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를 읽어보시길 제안한다. 지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퇴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두려움

저는 워낙 일을 좋아했어요. 워크홀릭이었죠.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월급까지 주다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좋아했죠. 정말 일을 좋아하며 살았는데 퇴임 5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일을 줄여야 한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드디어 퇴임이 눈앞까지 오자 이제는 큰 두려움이 되어 저 자신을 압박했어요. 그래서 퇴임 무렵 결심했어요. '앞으로 나는 돈 받는 일, 남 앞에 서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라고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언젠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두어야 하고, 남 앞에 서려면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일 자체보다 그런 일이 사람을 지치게 하니까요.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나니 퇴직하면 곧장 불교 공부를 하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어차피 워크홀릭이던 내가 쉬지는 못할 테고, 생활리듬이 별로 바뀌지 않을 만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불교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했던 거

죠. 물론 하고 많은 공부 중에 불교공부를 택한 건 좀 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라 어려서부터 불교적 생활에 젖어 살았지만 막상 불교공부를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40대 중반, 우연히 차를 몰다가 길을 잘못 들어 선원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 덕에 선원에서 참선을 해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았어요. 또 나중에는 미안마에 가서 명상을 배우는 복도 누렸고요. 이즈음 저는 일 자체는 너무나 좋아했지만 직장 내 극도의 경쟁과 성차별로 지쳐 있었거든요.

교수 퇴임 다음날 학생이 되다

저는 워커홀릭인 제가 생활리듬을 유지할 수 있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아무에게도 그만 두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으며,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불교공부가 제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불교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는 길이다 싶었죠.

2018년 8월 31일 오후 5시에 퇴임식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1일 동국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생이 되어 학교에 나갔어요. 교수 신분에서 갑자기 학생 신분으로 떨어졌는데, 예상과 달리 막상 학생이 되고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강의 듣는 게 그렇게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거기다가 학점은행제는 학생들 대부분 교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 전임 교수들이 아니고 강사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교수로서의 잘못된 권위가 없고 학생들도 존중해 주고 또 언제라도 질문하면 성의껏 답변해 주고, 나이 많은 학생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교수생활할 때 잘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웃음) 3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불교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대학원에 들어왔고, 지금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불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렸고 실제로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불교연구자가 아닌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석사만 마치고 수행에 더 매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회향하는 삶,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막 밀려 올라와요

저는 명상이 좋아서 퇴임 10년 전부터 치과대학 1학년 학생들한테 호흡 명상 같은 걸 조금씩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퇴임 무렵 우연히 여교수 몇 사람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때 제가 명상을 좋아하고 퇴임하면 불교대학도 다닐 거라는 얘기를 했더니 우연히 그때 참석했던 한 사람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 추천으로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 밤에 하는 짧은 프로그램이지



만 학생들의 반응이 꽤 좋아요. 특히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젊은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돌아오면서 밤하늘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막 밀려 올라와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명상을 가르쳐서 행복한 건지, 아니면 70 넘어서도 학생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어서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고모님이 원래 부처님을 모셨는데 고모님이 돌아가신 후 불상을 모실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제가 가족법당을 만들어 모시고 있어요. 이 법당에서 언니, 여동생, 저, 이렇게 세 자매가 돌아가면서 하루 세 번 예불을 집전해요. 법당을 개방하니깐 나이 드신 이웃 할머니들 중에 다리가 아파 먼 절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이 저희 법당에 오셔서 같이 예불도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분들의 무료함도 덜어드릴 겸 치매예방과 마음건강에 도움을 드릴 겸 해서 이정호 선생님께 배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행복해 하시자 할머니들의 가족까지 이 일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의 아드님이 당신의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것도 각각 넣어서 맞춤 달력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세요.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배운 불교수행과 미술치료과정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발원이 되기를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개발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저라도 도움이 되기를 마음으로 마지못해 연구소를 이끌어왔어요. 이제 개발원이 안정을 되찾았으므로 연구소 소장은 불교 학술적 소양을 갖춘 분이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를 열심히 발굴해야겠지요. 저는 우리 개발원이 청운동예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만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돌아보면 저희 기관 주변에 학교가 세 곳이나 있어요. 우리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세대차이를 느낄 수도 있으니만큼 감히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개발원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추진한다면 미력하나마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능력이 다양하니깐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개발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



꼬마 부처님들의 모험 가득 템플스테이



선사들과 수행자들이 참선하고 정진하는 청정한 기운이 가득한 곳, 문경 한산사에 일곱 분의 꼬마 부처님들이 오셨다.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신 부처님 발자국을 따라가듯 일곱 분의 꼬마 부처님들이 머무는 걸음마다 즐거움과 환희가 가득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삭발하고 단기 출가했던 동자스님들과 영108 키즈가 함께 만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웃음꽃을 피우며 우리만의 작은 불국도를 만들고, 장엄했다.

다시 만난 우리

올해 불교여성개발원 이기향 원장님이 마음을 내시고 또 굳건한 의지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영108 가족템플스테이'를 추진하신 덕분에 지난 6월, 육지장사에서 펼쳐진 야단법석 템플스테이는 참으로 의미가 깊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찰에서 아이들은 별다른 장난감 없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았고,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려 놀면서 서로에서 스며들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졌다. 첫 번째 템플스테이를 회향하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음 템플스테이를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9월, 우리는 문경 한산사에서 다시 만났다.

동자승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두 번째 영108 키즈 템플스테이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바로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를 졸업한 동자스님들이었다. 한산사를 찾은 다섯 명의 동자승 중 한 명인 인산스님(김정산)은 영108 키즈이기도 했으니 이번 템플스테이는 동자승과 영108 키즈가 만난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한산사의 자연 역시 아이들을 너른 품으로 안아주었다. 풀밭을 날아다니는 메뚜기들을 본 순간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자리채와 매미채를 들고 뛰어놀기 시작했다. 엄마와 아빠가 짐을 내리고, 방사를 배정받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과 하나가 된 듯 곤충채집에 몰입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무신 던지기, 비눗방울 놀이, 축구까지 아이들의 놀이는 실재 없이 계속되었다. 깔깔거리며 시끌벅적하

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는 스님들과 어른들 덕분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늦여름의 뜨거운 햇볕도, 송글송글 맺혔다가 흐르는 땀방울도 일곱 아이의 호기심과 에너지를 막지 못했다. 짐 정리를 마친 후, 아이들은 준비해온 법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회색 절 바지와 회색 조끼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도량을 누비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꼬마 부처님들이었다. 그 어떤 '안 돼!'도, '그만!', '하지 마!'도 없는 한바탕 놀이가 끝난 뒤 아이들은 법당에서 스님께 절하기를 배웠다. 관세음보살님과 스님께 인사를 올린 뒤 잠시 조용해졌나 싶었으나 아이들은 이내 법당을 놀이터 삼아 구르고 놀기 시작했다. 반질반질한 바닥도, 그저 평범한 방식도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장난감이었다.



산신각에서 생긴 일

저녁 공양 전,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짧은 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과자와 간식이 들어있는 꾸러미 하나씩을 선물 받은 아이들은 씩씩하게 산으로 향했다. 산으로 가는 길목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산신각에 다다랐을 때, 인산스님(김정산)이 근엄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반짝거리는 봉투를 꺼냈다. 한산사에 오기 전, 할머니가 챙겨준 복돈이 담긴 봉투를 꺼낸 인산스님이 뽀뽀한 천 원짜리를 꺼내며 외쳤다.

“여기 천 원씩 가져가. 한 사람당 천 원 한 장씩이야. 저기 돈 넣는 곳에 천 원 넣고 소원 빌면 돼. 아직 안 받은 사람?”

“나! 나도 할래!”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참으로 질서 정연하게 서로를 보면서 산신각에서 예절을 지켰다. 열 살 큰 형아를 믿고 따르며 일곱 살은 여섯 살을 챙기고, 여섯 살은 일곱 살에게 모르는 것을 배웠다. 서로가 도반이자 선생님이며 선배이자 후배인 셈이었다.

산으로 가는 길은 평범했으나 아이들의 눈에는 탐험할 거리가 넘쳐났다. 졸졸 흐르는 물도, 물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여물지 않은 채 떨어진 초록색 표죽 가지 껍질을 지닌 밤송이들도 아이들은 신기하고 놀라워했다. 이 대단한



탐험가들은 그저 무심하게 구르는 낙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으니 간단한 포행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계획은 저절로 무산되고 말았다.

신심이 차올랐던 저녁 예불

“내가 본 구름은 완전히 무지개처럼 길었어.”

“저 구름은 조각들을 붙여놓은 것 같아.”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에서 구름을 보며 조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이에 어느덧 도량에 어둠이 내렸다. 해가 지고 나서야 ‘마음껏 뛰어놀기’ 프로그램이 드디어 종료되고 저녁예불이 시작되었다. 일곱 아이를 나란히 앞줄에 세우고 그 뒤로 엄마와 아빠가 앉았다. 종을 울리는 것을 시작으로 칠정례와 반야심경 독송까지 저녁 예불은 아주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으나 예불이 끝날 때까지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장난기 없이 의식에 동참했다.

“성불하십시오”

아이들과 마주 보고 부처가 되라는 이야기를 건네며 예불을 마칠 때, 어쩌면 이 자리가 불국토이자 극락정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이 내린 고요한 산사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예불을 드렸던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저녁 예불 이후는 자유 시간이었다. 온몸이 축축해질 정도로 뛰어놀았던 아이들은 서둘러 땀을 씻어내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산사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실컷 놀았던 만큼 아이들의 밤을 달게 채워줄 ‘잠님’도 금방 찾아오실 줄 알았다. 하지만 웬걸. 개운하게 씻고 난 아이들은 한방에 모여서 밀린 수다를 나누며 다시 놀기 시작했다. 오, 관세음보살. 그때 산책을 다녀오던 아빠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하늘 좀 봐봐. 별이 가득해”

별이 가득하다는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며 야무지게 신발을 신었다. 곧 잠님이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님을 직감한 엄마들은 외투를, 아빠들은 돗자리를 챙겼다. 귀뚜라미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찾아서 밤 산책을 시작했다. 그리고 선원으로 올라가는 길 한 가운데 돗자리를 펼치고 누웠다. 용기종기 모여 누운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도 즐거운지 다시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쏟아질 것처럼 총총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았다.

극락김밥을 먹으며 다음을 약속하다

산사는 새벽도 부지런히 찾아온다. 새벽 3시, 엄마들은 새벽 예불과 좌선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며 동이 트는 광경



을 지켜보았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된 하루인데 조금도 졸리거나 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이 상쾌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기와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본 아침이 과연 있었던가. 잠에 허덕이지 않고, 피곤에 쫓기지 않는 하루가 과연 있었던가.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살피보는 대신 오롯이 나만의 아침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안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이한 아침, 잠에서 깬 아이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양을 마친 후, 아이들과 함께 공양간에서 김밥 싸기를 했다. 오이를 가득 넣은 김밥, 당근만 가득 넣은 김밥, 말아지지 않을 정도로 퐁퐁한 김밥, 손가락 굵기의 날씬한 김밥 등등 개성 만점의 김밥들이 푹푹딱딱 만들어졌다. 김밥 싸기를 마무리한 후 월암 큰 스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다. 법복을 갖춰 입고 삼배를 올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가 곧 극락이다. 아이 한 명을 불자로 키워내는 것이 대웅전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불사인데 여기 지금 대웅전이 몇 채인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웅보전이라고 해주시는 말씀에 감동할 틈도 없이, 큰 스님께서서는 바람에서 용채를 꺼내 아이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원래 절에 온 객스님이 떠나는 날, 차비를 주는 거다. 동자승을 했으니 너희들은 다 우리 절에 온 객스님이다. 알았나?”

아이들을 부처님처럼, 대웅보전처럼, 스님처럼 바라봐주시는 큰 스님의 큰 사랑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이를 부처님 뵈듯 귀하게 보라는 법문을 들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쌍둥이가 있다고? 쌍둥이가 둘이라고? 못 찾겠다. 다 똑같이 생겼다. 왜 똑같이 생겼는지 아냐?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 내 눈앞에 극락이 있는데 어떻게 쌍둥이를 찾겠나?”

큰 스님과의 차담을 끝으로 한산사에서 보낸 1박 2일 동안의 템플스테이가 마무리되었다. 마음껏 놀고,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스님께 마음껏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단순해질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우정을 한껏 키운 아이들은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헤어졌다. 그래, 우리 또 만나자. 다음에는 어디에서 만날까? 🙏



늦어름! 발전계획 발표회 성황리에 갖다



청운동 시대를 힘껏 연 불교여성개발원은 벌써 23세의 청년이 되었다. 광장 개원식 이후 개발원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실천하고자 원장 이하 임원 워크숍과 108인회의 회장과 모든 차수장과 회원이 참석한 전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모두 청운동 시대의 '희망'을 안고 회원들의 '열정'을 담아 개발원의 목적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비전과 사업,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만남으로는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내기에는 아쉬움을 남겨둔 채였다. 그러던 차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정년 퇴임한 조은수 초대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등의 제안으로 향후 10년의 기틀을 다지는 비전과 구체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발전에 필요한 기본 주제는 조직과 재정 등 네 가지로 정하고,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조은수 전소장이 맡아, 문경시 한산사에서 1박 2일 (2023.8.28.~29)간의 토론회로 이루어졌다.

발전계획 발표는 5개 분야로 진행되었다.

1.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조은수 초대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2. 조직(남동현 108인회 회장)
3. 재정(윤정로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
4. 청소년교육(정대련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
5. 국제 교류와 교육 그리고 기타 문화역량 강화사업(조은수·전영숙 전불교여성연구소 소장)

사회는 최경분 회원(9차, 전수성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관장)이 맡았다. 문경 한산사까지 참석한 회원이 '짚여성불자'들이라며 환영의 박수로 개회의 문을 열었다.



이기향 원장은 인사말에서 늦어름 장대비 속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재직 중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있었는데 원장이 된 지금 그 병통이 도진 것 같다. 앞으로 향후 10년을 부원장들과 논의하면서 마침내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다. 개발원이 우뚝 서게 된 것은 회원 모두가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를 모아 최적의 결정을 해왔다고 본다. 청운동 시대를 열어낸 모든 회원들은 독립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책임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경험한 개발원의 역사에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를 점검해 본다. 앞서 한산사 월암스님께서 ‘답은 사실은 문제 안에 다 있다. 수행을 놓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는다. 아마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월암스님과 지금의 개발원의 서 있는 자리가 다르지 않은 듯하다. 자료를 준비해준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고, 토론 시간에는 좋은 의견 주길 바란다.” 고 했다.

이어 다섯 주제에 10분씩 발표를 하였고,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개발원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 맞는 비전 제시는 필요하다. 돌이켜 보니 10년 전, 6년 전에도 비전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하였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개발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포교원에서 독립 후 회원들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재정 감소도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고통의 3년은 여성광장의 마련이었으며,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년을 준비할 때이며, 지금의 발표는 결론이 아니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첫 단추이며 개발원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다.

6월 말에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런 자리에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이 환영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앞으로 한국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개발원이 어떻게 대표성을 발휘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최초의 재가여성단체로서의 위상



과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은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넓힐 때라고 생각한다.

2. 조직에 대하여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 여성불자108인회의 실상 파악이 필요하다. 개발원은



여성불자의 신행문화를 변화, 혁신시켜 스스로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교단·사회에서 불교의 자비, 평등사상을 구현해 갈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정신과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여성불자 역량결집 •여성친화적 종교의 신모델 개발 •인류를 밝힐 불교 리더십 개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체 문화확산이다.

위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2007년도에 (사)지혜로운여성을 만들어 사업하고 있다. 개발원 산하 기구로 가장 큰 조직은 여성불자108인회이다. 108인회 회장으로 108인회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기 위해 각 사업 센터별 센터장, 월1회 차수별 집행부가 모여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또 각 차수에서는 차수장, 부차수장, 총무, 재무 집행부가 있어 차수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함께 하고픈 조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3. 재정에 대하여

개발원을 움직이는데 가장 요긴한 것은 재정이다. 내실을 기하고, 외연을 확대하려면 재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재정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허공에 뜬 말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운영비는 이사회비를 포함한 회비와 후원금이 주종을 이루는 즉, 모연을 통해 운영하는 구조이다. 단위사업으로 중요한 수입원은 바자인데, 1년에 1회 하는 정기 바자를 체계적이고 외부인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교원의 지원금이 없어진 것은 2019년부터이다. 지원금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 미만이고 경상비만 보면 약 24%를 차지한다. 그러기 때문에 포교원의 지원 중단과 경제적 자립과의 연관성은 큰 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회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질의 다른 이름은 자비이고, 자비로운 회원은 역할에 맞게 보시를 해야 한다. 우리 선배님들은 (사)지혜로운여성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여성광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매달 이자 158만 원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대출금을 빨리 갚아서 1년에 2천만 원이나 되는 경상비를 줄여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광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장기 발전을 위해서 재정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교육에 대하여

청소년 포교를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기독교 인상을 풍기지 않는 채로 청소년교육을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다. 여성

가족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등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미래재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매우 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 또한 다르지 않다.



아름다운재단, 푸른나무재단, 박물관에서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아리 댄스, 마술, 기획 활동, 악기연주, 국악, 미디어 놀이 체험활동, 포토폴리오 제작, 멘토링, 캐릭터 브로치 의상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있다. 또한 청소년 친화적 마을축제, 마을 동아리 등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체험활동은 야영, 스포츠활동, 예술, 직업체험 등이었다.

사찰별 활동은 화계사 영어법회, 연등회, 행복명상, 예술놀이로 부처님법 배우기, 불교 문화제 지킴이 등을 화계사, 진관사 등에서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참선하고 명상을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우선 청소년들이 원하는 걸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108인들의 자녀들에게 불교 관련 문화체험의 제공, 상담과 인프라, 회원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재능기부 참여의 가능성도 가늠해 보는 기회였다.

5. 국제 교류와 교육, 그리고 기타 문화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불교를 낯설어하며, 성공 위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삶에 대한 성찰이 어렵다는 점이다. 불교의 전파 생각에 앞서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염려가 된다.

앞장서서 멘토링 강이나 해외 견학을 통한 석학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미국은 명상센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배울 게 많다. 108인회 자녀를 대상으로 1:1코칭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겠다. 내부교육과 실행, 교리도 장기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비나눔의 스킬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것은 회원들이 동의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조용히 있으면 네트워크가 성글게 된다. 기존 회원들은 촘촘하게 나아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 사찰순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스님들 따라다니는 모습이다, 해외 순례를 가게 되면 그쪽 사람들과 MOU 맺는 등 명분을 갖고 가면 좋다.

샤카디아대회 때 대만에서 온 재가여성불자들을 지켜보면서 감동한 점은 모든 순간순간 깨어 있었고, 과정마다 자기성찰에 도움은 물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느껴졌다. 대만에서의 공승제도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 전원이 소감과 마음 나누기를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하계수련회 및 발전방안 발표회를 마쳤다. 🙏

카레소스와 감자조림

카레 소스

여러 재료로 한 끼 식사가 간편하고 충분한 영양을 갖출 수 있는 카레 소스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토마토와 양배추를 넣고 단호박으로 단맛을 냈습니다. 한 번에 넉넉히 마련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여 드시면 됩니다. 카레 소스를 밥에 얹어 카레라이스로 드시고, 우동과 소면을 삶아서 카레우동과 카레소면으로 변화를 주어 드시면 좋습니다.



재료

쇠고기(오늘은 무항생제 불고기감 사용,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좋음)

토마토, 감자, 양배추, 당근, 단호박,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현미유, 소금, 맛간장, 진간장, 카레 가루



조리법

늘 하시던 대로 냄비에 현미유와 썬 고기, 토마토, 진간장을 조금 넣고 볶으면서 감자, 당근, 양파, 양배추, 버섯을 순서대로 넣고 볶은 다음 야채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끓이면서 맨 나중에 단호박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카레를 풀어 넣고 한소끔 끓인 후 마무리합니다

계절별로 나오는 식재료 예를 들면 사과, 아스파라가스, 애호박, 연근, 새송이, 완두콩, 넝쿨콩 등을 사용해도 훌륭합니다.



감자조림

보통 감자조림을 썰어서 그냥 하면 익는 과정에서 부서지기 쉽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감자가 투명해지고~ 먹었을 때 너무 무르지 않을 정도로~

재료

감자, 파, 멸치, 청양고추, 맛간장

조리법

감자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3개) 소금물에 익힙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과 멸치 청양고추를 볶다가 익힌 감자와 준비해 둔 양의 진간장 맛간장 조청 파를 넣고 눈지 않도록 감자 삶은 물을 부어가며 중약불에서 볶으면서 즐입니다.



감자가 부서지지 않고 간이 배면 불을 끄고 참기름을 두릅니다. 접시에 담고 깨를 뿌립니다. 식성에 따라 고춧가루를 넣어도 됩니다.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매 끼니가 내 몸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인식되면 주변의 식재료가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요리할까가 생각되고 누구와 함께 먹을까가 생각되는 즐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산하대지에서 자연과 함께 또 자연을 이기며 우리 곁에 오는 온갖 빛깔의 수많은 식재료와의 소중한 만남에 감사하며 내 손으로 내 정성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주인공이 되어보시겠습니까?

우바이에찬 건강한 먹거리이야기에서는 집마다의 특별식이나 모두와 나누고 싶으신 음식을 추천해 주시면 이야기 속에 함께하겠습니다. 모두가 관심 가지시고 멋진 밥상이 차려지길 기대합니다. 🍴

사무국 소식

○ 임원 간담회

7월 13일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의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의 임시 이사회가 개최 예정이었으나 폭우 때문에 임원 간담회로 대체하였다. 참석 임원 11명은 카페108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회의자료는 이사 단체톡방에 공유하였다.



○ 확대운영위원회

9월 14일 이기향 원장, 이사장이 주재하는 정기운영위원회를 108인회 차수 임원들도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로 개최하였다. 7월은 임원간담회, 8월은 여름 휴가로 줌회의를 개최하여 3개월 만에 대면회의에서 카페108(옥상) 리모델링, 각 센터 사업보고에 이어 지하층 신규 임대, 창립23주년 기념식 및 제11차 108인 선정식, 위즈덤합창단 단원 확보, 2024 불교르네상스의 꿈Ⅲ TFT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회의전에 지혜아카데미 리사이클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6인



중 참석한 2인(대상 이희숙, 인기상1 안애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전달하였다.



○ 이기향 원장, 소통과 화합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기획, 보리&연꽃에 회원들 초청

이원장은 지난 봄부터 10여 회에 걸쳐 전임 원장들을 비롯, 108인회 회원을 초청, 팻터 파티를 진행하였다. '화합'을 개발원의 모토로 삼는 이원장의 기획으로 열린 팻터 파티는 2개 차수씩의 108인회 모임, 부원장, 차와선 임원진, 위즈덤합창단을 초대하였다. 108 회원은 식사를 즐기며 불교여성개발원 발전에 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 샤카디타코리아 운영위원 및 회원 개발원 방문

8월 20일 샤카디타코리아 공동대표, 운영위원, 회원은

사무국 소식

지난 6월 23일부터 5일간 개최한 제1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에 대한 평가회의 겸 단합대회를 가진 후 여성광장을 방문하여 마하실에서 차담을 가졌다. 앞으로도 개발원과 샤카디타코리아는 긴밀히 연대하며 2025년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개최국 정보 및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광장 건립을 이룬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을 향한 덕담을 나누었다.



○ 여성광장 지층 방수공사 회의

여름 장마가 끝난 후 여성광장 지층의 침출수를 발견하고 긴급회의를 가져 정확한 원인 파악 후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졌다.



○ 하계 수련회 및 발전계획 발표회

8월 28일~29일 1박2일에 걸쳐 문경 한산사에서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하계수련회 및 발전계획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한산사 월암스님과 차담 시간을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중에 이렇게 한산사를 찾아준 데 대한 환영 말씀과 함께 최근 발간한 『전등수필』을 친필 서명하여 참석자 모두에



게 선물해주었다. 먹는 것의 평등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한산사 대중 스님들과 해발 800고지의 맑고 청명한 산사에서 용문선원 참배를 마치고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 운영회의

8월 30일 성불연대 운영회의에 참가하여 단체 현황 및 하반기 성불연대 강의 개강만다라 그리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금강반야바라밀경 200일 기도 회향 및 300일 기도 입재

6월 10일 200일 기도 입재하여 9월 19일 회향하고 9월 20일부터 300일 기도 입재하였다. 금강경기도는 현재 40여 명이 참여하여 매일 새벽 5시에 단체 독방을 통해 기도시작을 알리고, 1시간여 기도 후 기도 종료를 알리면서 이어가고 있다. 기도 후 기도비 매일 1천원씩을 모아 회향일에 맞춰 지혜장학금으로 보시하고 있다.



사무국 소식

○이기향 원장 초청 전임원장(고문) 만남

9월 22일 전임원장을 초청하여 자하문 들뜰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 전에 하던 연 2-3회 정례 모임을 앞으로 이어가기로 하였고, 식사 후 여성광장 카페 108에 들러 차담을 가졌다. 현안인 여성광장 은행 채무 변제를 위한 “2024 불교르네상스의꿈Ⅲ”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인숙 원장 작품 기증

9월 10일부터 3회에 걸쳐 가방, 장식장, 주얼리, 생활 소품 등 애장품 100여 점과 미술작품 13점을 불교여성개발원에 기증해 주셨다. 또한 주름 옷 65점도 함께 와서 여성광장을 찾는 회원 및 수강생들에게 판매하여 265만원의 수익금을 여성광장에 적립하였다.



○이불회 여성광장 방문

7월 19일 불교여성광장건립에 큰 후원을 해주신 이불회(이화여대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여성광장을 방문하여 공간 전체를 둘러보고 이기향 원장과 차담을 나누었다. 이불회는 김선옥 고문의 동창 모임이기도 하다.



○여성광장 기증 추석선물

올해 추석을 맞이하여 불교여성개발원 고문님과 임원(이사, 감사)이 아닌데 1천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께 추석을 맞이하여 고급 커피를 선물하였다.

○고급 커피잔 후원

양경윤 108인회 전 회장이 여성광장 카페 108에 비치할 고급 커피잔세트를 후원하여 여성광장을 방문하는 귀빈들께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여성불자108인회 사찰순례(회장 남동현, 6차 108인)

9월 13일(수) 지난 6월 개최한 바자에 대한 보은의 의미로 양주 육지장사와 파주 보광사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참가자 서른 명은 오랜만의 단체 여행에 오며 가며 주저 없이 마이크를 잡아 사찰 순례에 대한 기대와 소감을 충분히 전하였다. 육지장사 회주 지원스님은 몸이 건강해야 수행도 잘 할 수 있다며 생활 건강에 대한 알찬 법문을 해주었다.

식사 후 다다미방에 드러누워 미리 준비해간 유정란 계란으로 얼굴과 목에 마사지하고, 마사지하면서 오른 옆을 얇게 쓴 애호박으로 식히면서 담소 나누는 특별하고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파주 보광사로 이동하였다. 차안에서 계미향 박사(8차 108인)의 보광사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도착하여 불화, 목어 등을 돌아보고 참배하였다. 특히 최희영(7차 108인) 차수장의 시조창은 비 오는 절 경내에서의 특별한 이벤트였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소감 나누기를 통해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사찰순례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참가자들의 공감이었다.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9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여성불자108인회 차수별 임원회의가 있었다. 사찰순례 참석자 독려와 11차 108인 추천에 적극 협조 요청, 그리고 바자 잔여 물품 추석맞이 판매에 관해 심의하였다.



○7차 108인회(차수장 최희영)

9월 3일 번개 모임이 있었다. 리사이클링 공모사업 작품이 전시중인 지혜실에서 일일 지킴이를 맡아 봉사하였다.



○교정교화센터(센터장 윤덕심, 9차 108인)

8월 11일 고봉중고등학교 여름방학 수련회, 9월 22일 추석을 맞아 2회에 걸쳐 간식을 제공하였다. 매월 1회 실시하는 고봉중고등학교 봉사에는 윤덕심 센터장과 이수연 연구교육팀장이 참석한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연, 10차 108인)

8월 12일 가족지원센터 좋은벗 모임(사기순 팀장) 회원은 매월 1회 갖는 자조모임에서 경북공을 답사한 후 청운동 여성광장을 방문하여 차담을 하고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정진원 회원도 함께했다.



○건강밥상지킴센터(센터장 최혜경, 2차 108인)

8월, 9월 2회에 걸쳐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요리하는 주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맛간장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맛간장은 친환경 국산재료로 만들며 개발된 수익사업 품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영희, 9차 108인)

상반기에 있었던 「차와 선」 강의에 이어 9월 11일부터 「차와 선2」를 개강하였다. 다도 전문가인 김영희 센터장이 차를 마시면서 다도인의 길을 안내하고, 이어 김홍근 교수가 차와 선이 둘이 아님을 교재와 함께 설명하는 귀한 강좌이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온라인 강좌도 함께 진행 중이다. (수강문의: 김지영



010-4526-1126) 수강생 12명은 인사동 선원이 주최한 일본 교토 정원여행을 함께 다녀왔다.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진, 2차 108인)

대한불교진흥원 공모사업인 발원문 쓰기 워크숍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1차는 성인 대상으로 7월 12일 원유자 부원장을 강사로 모셔 “발원문은 청정한 나를 만나는 것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명상이다”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2차는 8월 9일 성인과 아동(손주, 손녀)이 함께 하는 워크숍으로 조명숙 회원을 강사로 모셨다. 워크숍에 참석한 수강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고, 이후 출간할 도서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에 선정된 발원문 작품을 신기로 하였다. 11월 24일 불교여성개발원 창립기념일 1등 발원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생명존중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재, 8차 108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봉사자로 강영자 이사, 황외숙 이사, 김순철 이사, 이주연 회원, 류인숙 회원, 가톨릭 신자인 장세선 님 등이 활동 중이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영108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9월 9일~10일 제2회 영108 가족템플스테이를 문경한산사에서 진행했다. 5가족 18명이 함께 하여 도량 텃밭 투어, 스님이 알려주는 절하기 예법, 우리 가족 김밥말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불심이 깊어지고, 자녀들은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동자승 출가에 동참한 데 이어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연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 진행팀으로 함께한 이기향 원장, 남동현 108인회 회장, 이수연 팀장은 5가족 영108 가족들이 순조로운 템플스테이가 되도록 바라지를 하였다.



○역사문화답사(해설사 안영, 10차 108인)

8월 23일 제4차 역사문화답사를 했다. 「오래된 서울, 가까운 한양」을 주제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녀왔다.

○지혜아카데미(대표 정진희, 3차 108인)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지혜아카데미는 7월에는 「보석테라피」(이영미, 6차 108인), 8월에는 「그림으로 철학하기」(정대련, 6차 108인), 9월에는 「구강 건강관리」(김진, 2차 108인)에 대해 강의하



였다.

한편, 환경을 생각하여 안 쓰는 물건을 재활용하고, 독창성을 가미한 상품 개발 그리고 회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방안으로 리사이클링 공모사업을 하였다. 회원 18명이 44점의 리사이클링 작품을 제출, 정경연 고문, 이기향 원장, 이영주 지혜아카데미 교육위원이 심사, 8월 31일 6명에게 33만 원의 상금을 지급, 수상자의 대부분은 상금을 영108, 지혜아카데미, 광장건립에 후원하였다. 출품된 작품은 9월 1일(금)~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성광장 지하실에서 전시, 시상식은 9월 14일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있었다.

대상 이희숙(7차 108인) 우수상 김윤옥(7차 108인) 장려상 박연(10차 108인) 아이디어상 최혜경(2차 108인), 김숙애(9차 108인) 인기상 안애원(7차 108인)



산하기관 센터 소식

○대상관계심리학 세미나(실장 이정호, 2차 108인)

9월 15일부터 미술심리상담사 교육과정으로 「대상관계심리학 세미나」를 개설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분화하여 멜라니 클라인, 도널드 위니컷, 마가릿 말러, 하인즈 코헛으로 이어지는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는 강좌를 개강하여 9명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수강하고 있다. 대상관계심리학은 영유아기 심리발달에 관한 이론으로 심리상담사 외에도 자녀를 키우거나 인간발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이다



○날란다독서모임(반장 조명숙, 8차 108인)

9월 7일부터 일곱 번째 책 『다키니 파워』를 선정하여 한 주제씩 정리하여 발표한다. 한편 하반기 강의 첫 시작일에는 역자 중 김영란 3차 108인이 책 소개와 내용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위즈덤합창단(단장 황경자, 8차 108인)

김양희 지휘자의 지도 아래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찬불가를 연습하는 위즈

덤합창단은 신입 단원 모집을 하고 있다. 김옥경 라인댄스 강사도 위즈덤합창단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기향 원장 별채를 방문하여 합창단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단합대회 시간을 가졌다. 문의: 황경자 단장 010-6216-8647



○다문화 행복가족센터(센터장 노인자, 5차 108인)

9월 10일 강화 전등사가 개최한 제 18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 행사에 행복가족센터 회원 30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이주민 문화축제에 올해 3년째 참가하였다.



○우바이예찬(편집위원장 형난옥, 6차 108인)

9월 1일 형난옥 우바이예찬 편집위원장은 발행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희, 조정숙 편집위원과 함께 87호 기획회의를 했다. 우바이예찬 편집위원회에서는 취재, 디자인, 교정등의 봉사를 해줄 새로운 편집위원을 모집하고자 한다. 문의: 형난옥 편집위원장 010-6253-1598

회원동정

○김명순(7차 108인)

8월 16일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간협동과정에서 "조계종 승려의 승려복지제도 인식과 문화 성향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 직원복지회 부회장을 맡아 불법을 홍보하고 있다.



○조은수(2차 108인)

8월 31일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교수 정년식을 가졌다. 2007년도부터 서울대에 재직하던 25년의 교편을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1년간 예일대학교 석좌교수로서 불교철학 강의차 출국하였다.



○정경연(1차 10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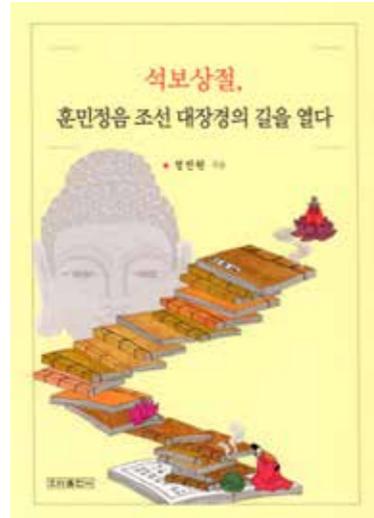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세오갤러리에서 1985년부터 올해의 신작까지 40년간의 작품을 「Kiaf SEOUL 2023」에서 단독부스로 선보였다. 40년간의 장갑 연구로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하며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섬유, 조각, 판화,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드는 조형 작업을 통해 섬유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로도 평가된다.



회원동정

○정진원(7차 108인)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우리출판사)를 출간하였다. 현재 터키 국립에르지예스대학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삼국유사, 여인과 견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등의 저서를 통해 훈민정음 불경과 삼국유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과정이 K Classic 한국학이라는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다.



○진정순(3차 108인)

9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개최한 불교 위상을 높인 지도자 표창 수여식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에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 우수 지도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현재 불교스카우트연맹 부연맹장을 맡고 있다.



○최경분(9차 108인)

9월 11일 대구일보에 [최경분의 여성과 일] 생활일손이 '직업'이 될 날은 언제일까. 로 연재하였다. 대구에 있는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장으로 퇴임하였다.

<https://naver.me/FnMT3xT8>



○형양자(10차 108인)

나눔 크리에이티브콘텐츠 & 출판(대표 형난옥) 교육팀은 금산인삼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금산 인삼문화 전문가 교육과정(총 45시간)을 위탁 수행한다. 지난 8월 11일에 제1기 개강하여 성황리에 진행중이며 11월 2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3.7.1~2023.9.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
|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 백경임(1차) | 1,000,000 | 추미실(3차) | 1,000,000 | 이혜숙(9차) | 30,000 | 서혜정 | 30,000 | |
| 원유자 | 600,000 | 사기순(4차) | 1,000,000 | 하봉자(10차) | 1,000,000 | 임정애(6차) | 30,000 | 선문스님 | 30,000 |
| 이기향 | 2,000,000 | 서혜경(1차) | 1,000,000 | 홍원숙(8차) | 1,000,000 | 전영숙(8차) | 30,000 | 송만순 | 60,000 |
| 이영미 | 500,000 | 성민선(3차) | 1,000,000 | 홍정애(3차) | 1,000,000 | 정은희(6차) | 30,000 | 신미옥 | 15,000 |
| 이정호 | 1,000,000 | 손미영(7차) | 1,000,000 | 조은경(10차) | 1,000,000 | 정지원(7차) | 30,000 | 신은영(자우스님) | 30,000 |
| 정진희 | 1,200,000 | 손미원(9차) | 1,000,000 | 박기옥(10차) | 1,000,000 | 정혜정(9차) | 30,000 | 안미경 | 30,000 |
| 황외숙 | 300,000 | 손인희(9차) | 1,000,000 | 이천희(10차) | 1,000,000 | 조경숙(6차) | 20,000 | 안석자 | 30,000 |
| | | 송현주(4차) | 1,000,000 | | | 조귀자(9차) | 30,000 | 안정옥 | 30,000 |
| | | 신용현(9차) | 1,000,000 |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 | 조은수(2차) | 30,000 | 양현경(김범호) | 300,000 |
|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 | 안영(10차) | 1,000,000 | (CMS) | | 조정숙(6차) | 30,000 | 연명순 | 30,000 |
| 김순철 | 500,000 | 안애원(7차) | 1,000,000 | 강명희(6차) | 60,000 | 조현숙(10차) | 30,000 | 왕민영 | 30,000 |
| 김여주 | 1,200,000 | 양숙자(5차) | 1,000,000 | 강옥란(7차) | 30,000 | 주찬옥(6차) | 30,000 | 원유자 | 30,000 |
| 이기향 | 500,000 | 양채화(7차) | 1,000,000 | 강옥희(7차) | 40,000 | 최복란(8차) | 30,000 | 유명숙 | 30,000 |
| 이윤희 | 1,200,000 | 어순아(9차) | 1,000,000 | 강희경(10차) | 30,000 | 최은희(9차_부산) | 30,000 | 유현영 | 40,000 |
| | | 엄희원(10차) | 1,000,000 | 계미향(8차) | 30,000 | 최은희(9차_제주) | 30,000 | 윤용옥 | 15,000 |
| | | 오용옥(3차) | 1,000,000 | 고은자(10차) | 30,000 | 최희영(7차) | 30,000 | 이강희 | 15,000 |
|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 | 우인순(8차) | 1,000,000 | 김선연(9차) | 30,000 | 한주영(10차) | 30,000 | 이명순 | 300,000 |
| 강미중(5차) | 1,000,000 | 윤정로(9차) | 1,000,000 | 김양희(6차) | 30,000 | 한채화(9차) | 30,000 | 이미선 | 90,000 |
| 강설미(7차) | 1,000,000 | 이경자(5차) | 1,000,000 | 김영미(6차) | 30,000 | 한혜원(7차) | 40,000 | 이범순 | 20,000 |
| 권지혜(7차) | 1,000,000 | 이계경(4차) | 1,000,000 | 김영숙(6차) | 30,000 | 황남채(1차) | 30,000 | 이송화 | 30,000 |
| 김경량(10차) | 1,000,000 | 이두영(10차) | 1,000,000 | 김옥주(7차) | 30,000 | 황명자(6차) | 30,000 | 이숙자 | 30,000 |
| 김귀순(7차) | 1,000,000 | 이명숙(7차) | 1,000,000 | 김정숙(7차) | 30,000 | 황선화(5차) | 30,000 | 이승자 | 30,000 |
| 김미연(10차) | 1,000,000 | 이순이(3차) | 1,000,000 | 남동현(6차) | 30,000 | 황수남(9차) | 30,000 | 이시구 | 90,000 |
| 김미원(9차) | 1,000,000 | 이연숙(1차) | 1,000,000 | 남동화(3차) | 30,000 | 황치석(10차) | 30,000 | 이영재 | 30,000 |
| 김복순(2차) | 1,000,000 | 이원표(8차) | 1,000,000 | 노희순(3차) | 15,000 | | | 이윤구 | 30,000 |
| 김선옥(6차) | 1,000,000 | 이윤희(10차) | 1,000,000 | 문보경(6차) | 30,000 | 여성불자108인회비 | | 이윤희 | 30,000 |
| 김숙자(3차) | 1,000,000 | 이인옥(3차) | 1,000,000 | 박귀원(8차) | 30,000 | (온라인) | | 이재명(정원일) | 40,000 |
| 김순남(10차) | 1,000,000 | 이인자(2차) | 1,000,000 | 박정희(6차) | 30,000 | 김정희(9차) | 100,000 | 이재영 | 30,000 |
| 김승묵(3차) | 1,000,000 | 이재심(8차) | 1,000,000 | 배순자(6차) | 30,000 | 유혜정(11차) | 100,000 | 이정애 | 30,000 |
| 김양식(1차) | 1,000,000 | 이주연(6차) | 1,000,000 | 배정선(9차) | 30,000 | | | 이정호 | 30,000 |
| 김영순(3차) | 1,000,000 | 이주현(4차) | 1,000,000 | 변경이(8차) | 40,000 | 회원회비 | | 이종열 | 20,000 |
| 김옥숙(10차) | 1,000,000 | 이태영(9차) | 1,000,000 | 서은숙(6차) | 30,000 | 강희출 | 15,000 | 이진수(무관스님) | 30,000 |
| 김외숙(2차) | 1,000,000 | 이현아(10차) | 1,000,000 | 손인애(9차) | 20,000 | 권은량 | 30,000 | 이화선 | 30,000 |
| 김용숙(7차) | 1,000,000 | 이현주(10차) | 1,000,000 | 송종옥(9차) | 30,000 | 김어석 | 20,000 | 임정순 | 15,000 |
| 김윤옥(7차) | 1,000,000 | 임현주(7차) | 1,000,000 | 송주희(9차) | 30,000 | 김연희 | 30,000 | 임주연 | 30,000 |
| 김은희(4차) | 1,000,000 | 장미숙(9차) | 1,000,000 | 송혜진(8차) | 30,000 | 김영희 | 30,000 | 임태숙 | 30,000 |
| 김일영(7차) | 1,000,000 | 전나미(7차) | 1,000,000 | 신재영(6차) | 30,000 | 김정희 | 30,000 | 장길수 | 30,000 |
| 김주현(8차) | 1,000,000 | 전영자(3차) | 1,000,000 | 안기순(8차) | 570,000 | 김학엽 | 15,000 | 장영선 | 30,000 |
| 김지영(5차) | 1,000,000 | 정명자(8차) | 1,000,000 | 안인자(9차) | 30,000 | 김현숙 | 30,000 | 장윤실 | 30,000 |
| 김진여심(5차) | 1,000,000 | 정미령(8차) | 1,000,000 | 양경윤(5차) | 30,000 | 나경윤 | 15,000 | 전미옥 | 30,000 |
| 김현지(7차) | 1,000,000 | 정진원(7차) | 1,000,000 | 오지연(4차) | 30,000 | 도인희 | 30,000 | 정명모 | 30,000 |
| 남상민(1차) | 1,000,000 | 조명숙(8차) | 1,000,000 | 오현경(9차) | 30,000 | 민선정 | 30,000 | 정숙인 | 90,000 |
| 리영자(1차) | 1,000,000 | 조영우(7차) | 1,000,000 | 유진희(6차) | 30,000 | 박말희 | 15,000 | 정주현 | 40,000 |
| 문명하(5차) | 1,000,000 | 조재란(10차) | 1,000,000 | 윤정선(6차) | 30,000 | 박문숙 | 30,000 | 정희자 | 30,000 |
| 박강자(6차) | 1,000,000 | 조정현(8차) | 1,000,000 | 윤효영(8차) | 30,000 | 박복순 | 15,000 | 조귀자 | 30,000 |
| 박경자(5차) | 1,000,000 | 조희금(2차) | 1,000,000 | 이기향(1차) | 90,000 | 박영재 | 20,000 | 조우상 | 30,000 |
| 박근연(1차) | 1,000,000 | 최경분(9차) | 1,000,000 | 이수진(10차) | 30,000 | 박지선 | 30,000 | 조정숙 | 20,000 |
| 박명혜(2차) | 1,000,000 | 최나영(10차) | 1,000,000 | 이영희(8차) | 30,000 | 박홍우 | 30,000 | 진승연 | 30,000 |
| 박정애(8차) | 1,000,000 | 최영옥(9차) | 1,000,000 | 이은희(9차) | 30,000 | 박희상 | 30,000 | 진여스님 | 90,000 |
| 박종균(6차) | 1,000,000 | 최윤정(3차) | 1,000,000 | 이종용(조명숙) | 30,000 | 배수아 | 200,000 | 차원준 | 30,000 |
| 박찬재(9차) | 1,000,000 | 최해숙(4차) | 1,000,000 | 이현영(9차) | 20,000 | 배영철 | 20,000 | |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3.7.1~2023.9.30)

| | |
|-----------|---------|
| 최순진 | 20,000 |
| 최혜경 | 300,000 |
| 하양자 | 30,000 |
| 한승우 | 40,000 |
| 허난영 | 30,000 |
| 허영숙 | 30,000 |
| 형난옥 | 30,000 |
| 홍숙기(진여스님) | 30,000 |
| 홍점례 | 15,000 |
| 황유진 | 30,000 |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 | |
|----------------|------------|
| 강인영 | 20,000 |
| 계미향 | 270,000 |
| 김옥숙 | 108,000 |
| 김형숙 | 90,000 |
| 류인숙 | 90,000 |
| 박원자 | 450,000 |
| 손미영 | 360,000 |
| 손미원 | 100,000 |
| 송옥순 | 90,000 |
| 신수영 | 30,000 |
| 안혜경 | 200,000 |
| 양현정 | 300,000 |
| 유옥준 | 90,000 |
| 임주연 | 90,000 |
| 임지영 | 30,000 |
| 정주현 | 300,000 |
| 정진희 | 1,000,000 |
| 홍경희 | 324,000 |
|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 810,000 |
| 강옥란(7차) | 1,080,000 |
| 권은랑(회원) | 270,000 |
| 김연수(5차) | 100,000 |
| 김용숙(7차) | 1,080,000 |
| 김인숙 | 20,000,000 |
| 김정희(9차) | 80,000 |
| 김종숙 | 30,000 |
| 남동현 | 1,000,000 |
| 민경란(9차) | 1,080,000 |
| 원유자 | 300,000 |
| 윤정로 | 500,000 |
| 이기향 | 3,000,000 |
| 이영희(8차) | 200,000 |
| 이인자고문 | 900,000 |
| 이정호(2차) | 1,000,000 |
| 임순덕(5차) | 1,000,000 |
| 정대련(6차) | 1,940,000 |
| 정영숙(최혜경권선) | 200,000 |
| 조명덕(이정호) | 10,000 |
| 조명숙(8차) | 1,080,000 |

| | |
|------------|-----------|
| 조원진(정진희권선) | 216,000 |
| 피상순 | 1,000,000 |
| 황규잠(정진희권선) | 90,000 |

불교여성광장건립 (불교르네상스의꿈2)_ 악정 잔액

| | |
|-----------------|------------|
| 강순주(원유자 권선) | 1,080,000 |
| 계미향(8차) | 270,000 |
| 권수형(4차) | 360,000 |
| 권은랑(최혜경 권선) | 0 |
| 김연수 | 980,000 |
| 김종숙 | 310,000 |
| 김애주고문 | 5,000,000 |
| 김옥숙(10차) | 324,000 |
| 김용숙(7차) | 1,080,000 |
| 김인숙고문 | 65,000,000 |
| 김정희(9차) | 1,000,000 |
| 김형숙(정진희 권선) | 710,000 |
| 류인숙(5차) | 510,000 |
| 민경란(9차) | 5,400,000 |
| 박순(1차) | 9,000,000 |
| 박원자(5차) | 950,000 |
| 박진현(최혜경 손녀, 권선) | 1,000,000 |
| 배영숙(10차) | 1,080,000 |
| 손미영(7차) | 3,252,000 |
| 손미원(9차) | 680,000 |
| 송옥순(정진희 권선) | 810,000 |
| 신수영(정진희 권선) | 280,000 |
| 안혜경(이영미 권선) | 300,000 |
| 양경윤(5차) | 9,800,000 |
| 양현정(9차) | 300,000 |
| 유명숙(최혜경 권선) | 80,000 |
| 유옥준(정진희 권선) | 900,000 |
| 이시구 | 1,080,000 |
| 이영미(6차) | 4,000,000 |
| 이영주(7차) | 6,680,000 |
| 이영희(8차) | 880,000 |
| 이인자고문 | 7,200,000 |
| 이정호(2차) | 2,000,000 |
| 이철호(원유자 권선) | 1,080,000 |
| 임주연(정진희 권선) | 810,000 |
| 임지영(정진희 권선) | 870,000 |
| 정주현(최혜경 권선) | 300,000 |

| | |
|-------------|-----------|
| 정진희(3차) | 4,000,000 |
| 조원진(정진희 권선) | 0 |
| 조정숙사무국장 | 540,000 |
| 최정경(이영미 권선) | 1,080,000 |
| 형난옥(6차) | 7,080,000 |
| 홍경희(2차) | 723,600 |
| 황규잠(정진희 권선) | 750,000 |

기타후원금 온라인

| | |
|---|-----------|
| (다문화봉사단 / 교정교회센터 / 우바이예찬 / 재소자영차금 / 기타) | 200,000 |
| 강영자 | 200,000 |
| 귀빈여행사(양애자) | 80,000 |
| 김숙애 | 50,000 |
| 김순철 | 50,000 |
| 김윤옥(7차) | 70,000 |
| 김형인 | 100,000 |
| 김혜령 | 110,000 |
| 남동현 | 200,000 |
| 남혜정 | 100,000 |
| 박기옥 | 50,000 |
| 보우법사 | 300,000 |
| 송춘애 | 100,000 |
| 안애원 | 100,000 |
| 양정희 | 250,000 |
| 원유자 | 330,000 |
| 이기향 | 1,058,500 |
| 이수연 | 10,000 |
| 이영미 | 50,000 |
| 이영주 | 150,000 |
| 이영희(8차) | 100,000 |
| 이윤희 | 100,000 |
| 이정호 | 50,000 |
| 이희숙 | 50,000 |
| 임순덕 | 100,000 |
| 정대련 | 200,000 |
| 정은희 | 1,000,000 |
| 정진희 | 60,000 |
| 조정숙 | 41,000 |
| 최혜경 | 50,000 |
| 최희영 | 100,000 |
| 하수경 | 10,000 |
| 한림대봉사클럽 | 100,000 |
| 형난옥 | 100,000 |
| 황수경 | 270,000 |
| 워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 90,000 |
| 권승오 | 90,000 |

| | |
|-----|---------|
| 김미희 | 30,000 |
| 김여주 | 150,000 |
| 김옥경 | 90,000 |
| 신지울 | 100,000 |
| 양진만 | 60,000 |
| 어순아 | 180,000 |
| 정재선 | 180,000 |
| 황경자 | 180,000 |
| 황은복 | 90,000 |

고등동북지관 후원

| | |
|-----|-----------|
| 권기란 | 30,000 |
| 김연성 | 60,000 |
| 김혜미 | 30,000 |
| 김혜정 | 1,900,000 |
| 박영숙 | 90,000 |
| 윤정은 | 30,000 |
| 이기향 | 100,000 |
| 이희주 | 80,000 |
| 전유빈 | 30,000 |
| 전주옥 | 60,000 |
| 정별 | 30,000 |
| 한경숙 | 30,000 |
| 한정미 | 300,000 |
| 황경생 | 30,000 |

금강경회향기도비

| | |
|-----|---------|
| 김선옥 | 100,000 |
| 김재란 | 100,000 |
| 남동현 | 100,000 |
| 노숙령 | 100,000 |
| 성영란 | 100,000 |
| 심점순 | 100,000 |
| 양정희 | 100,000 |
| 원유자 | 100,000 |
| 유자현 | 100,000 |
| 이영주 | 100,000 |
| 이윤희 | 100,000 |
| 이정호 | 100,000 |
| 이지원 | 100,000 |
| 황수경 | 100,000 |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이후 국제청 연 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회원가입 안내]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정회원
● 매달 1만원 이상 회비 납부인
● 활동 센터 1개 이상 선택의 기회
● 교육과 프로그램 할인(회원활동 6개월 이상)
● 원광디지털대학 등록금 할인
● <우바이예찬> 정기발송
○ 가입문의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2

[후원 안내]

○ 불교여성개발원 국민은행 023501-04-031123
예금주 :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국민은행 023501-04-095228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계좌 농협 301-0085-6744-91
국민은행 023537-04-003040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불교여성회관)
*CMS(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실 분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